

## 백곡 김득신의 樓亭詩 연구

송 기 섭\*

<目 次>

- |               |                    |
|---------------|--------------------|
| I. 서론         | IV. 누정시에서 靜과 動的 조화 |
| II. 백곡의 시와 생애 | V. 결론              |
| III. 누정으로의 旅遊 |                    |

### <국문 초록>

백곡은 조선 후기 우리 문학사에 시로써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유수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의 앓았던 심한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학문의 각득함이 지둔하였다. 이로 인해 학문에 대한 만류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단한 노력으로 시로 名振했으며 일생동안 1500여 수의 많은 시를 남겼다.

본고는 백곡 김득신의 시와 생애, 그리고 누정시에 나타난 공간 활용 유형과 시의 소재를 통한 動과 靜의 조화를 고찰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누정의 공간 활용하면서 나타난 성정과 심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누정은

첫째, 시상을 발하기 위함이었다. 누정에서 詩品을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적절한 시구를 찾지 못해 고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둘째, 인간사에서 오는 愁心을 달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절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누각과 자신의 수심을 동일시하며, 그 수심을 한 잔의 술로 녹이는 모습에서 그의 인간적 고뇌를 더욱 짙게 느끼게 한다.

\* 선문대, 남서울대 외래교수/ sks4423@naver.com

셋째, 정자주변의 풍광을 즐기기 위함이었다. 이곳의 풍광을 牧歌的으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詩中有畫’의 당풍을 잘 살려내고 있다.

넷째, 이별과 만남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별에 대한 情恨과 벗과 회포를 푸는데, 여기에서 그의 온정적인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靜과 動의 시어 배열과 시구 배치의 조화를 통해 詩感을 높여주고 있는 것도 그의 누정시의 특징이다. 백곡은 作詩할 때 시어, 시구를 배열하거나 배치함에 있어 靜的 詩語, 詩句와 動的 詩語, 詩句를 조화롭게 하여 시의 묘미를 피하고 있다. 즉 내용상 詩語, 詩句를 靜的으로 표현할 것인가, 動的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형식상 어디에 어떻게 배열, 또는 배치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작시를 함에 있어 彫琢과 推敲의 고민을 엿보이며, 이러한 작시 기법이 그의 시를 절묘한 조화로 이끌고 있다.

이로써 그의 누정시가 진솔하고 청아한 성정과 미적인 심상의 발현과 또 이 시 속에 나타난 動靜의 조화에서 오는 절묘함이 苦吟하고 心脾를 쥐어짜며 一字千鍊하여 나온 결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백곡, 김득신, 누각, 누정시, 독서광

## I. 서론

柏谷 金得臣(1604-1684)은 조선 후기 우리 문학사에 시로써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충무공 김시민의 손자로, 경상도 관찰사 김치의 아들로, 우수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천연두를 앓아 1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학문을 접할 수 있었는데, 학문을 覺得함이 至鈍하여 주위로부터 글공부를 포기하라고 권유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이랑곳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였으니 그 학습의 증례를 「독수기」<sup>2)</sup>에서 찾을 수 있다.

1) 조선 후기 때 시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 조부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다.

2) 『柏谷集』의 『柏谷先祖詩集附錄』. 고문 36편을 각기 몇 번 읽었는지 밝혀 놓았다.

그의 문학 역시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특히 이 중 주목할 장르는 시이다. 당시 騷壇에서 택당 이식과 구당 박장원이 높이 평가하였고, 효종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名振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千慮一得하는 지독한 노력과 천부적 감성을 바탕으로 一字千鍊하는 자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백곡은 일생동안 1,500여 수의 많은 시를 남겼다. 이들 시에서 出仕意志와 이에 대한 懷疑, 인간사의 애환 등을 그리고 있는데, 진솔하고 청아한 성정이 느껴지며, 자연을 관찰하고 경물을 묘사함에 그 물상의 자태를 단아하면서 미적인 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作詩에 典故나 역사적 사실이 移入되더라도 내용과 부합하여 그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詩語彫琢에 있어서도 그만이 나타낼 수 있는 강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할 가치가 매우 많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 비해 ‘백곡의 시연구’가 아직 지지부진하다. 시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박사논문으로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sup>3)</sup>와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sup>4)</sup>가 있고 KCI급 국내학술지 논문으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백곡의 누정시를 통해 시의 독창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그가 누정으로 旅遊하면서 느낀 성정과 심상의 발현에서 오는 심리적 상태를 고찰하고 靜과 動의 시어의 배열과 시구의 배치를 통하여 시의 조화를 이루는 작법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백곡집』의 『백곡선조시집』책1, 2, 3, 4)<sup>5)</sup>에 나와 있는 樓·亭·堂을 주제로 지어진 詩를 抄集하고, 또 여기에서 이 논고에 宜습하는 시를 가려 詳考해 보고자 한다.

3) 이재복,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김광수,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5) 『柏谷集』의 『柏谷先祖詩集』책1에 五言絶句, 책2에 七言絶句, 책3에 五言律詩, 책4에 七言律詩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이하 시의 출처를 생략한다.

## II. 백곡의 詩와 生涯

백곡 김득신은 안동인 아버지 김치(1577~1625)와 어머니 사천 목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에 대하여 손자 김행중의 「行狀草」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면 비조 關智로부터 벼슬이 끊이지 않은 명문 집안으로 그의 증조부 때부터 백곡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문과에 급제하는 보기 드문 가문이다.

증조부 충갑은 문과 지평으로 좌찬성상락군에 추증되었고, 조부 시화는 문과 부평도 호부사로 홍문관전한에 추증되었으며, 아우 시민은 무과의 책선무공신으로 상락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시호가 충무공이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이 조부가 養祖가 된다. 아버지 치는 호가 남봉이다. 문과 경상관찰사로 이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이며 안흥군에 봉해졌는데, 조부의 봉군을 이어 추은했기 때문이다. <중략> (득신은) 壬寅年에 문과에 급제하여 국자학유에 제수되었고 관위가 올라 전직에 제수되었으나 숙사 하였고...6)

이렇듯 참으로 이루기 어려운 문과4대의 집안인 것이다. 여기에 양조부 金時敏은 임진왜란 때 진주목사로서 국가수호의 큰 공훈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아버지 역시 벼슬이 경상관찰사에 이르고 있다.

백곡이 驪壇에 名振하고 늦은 나이의 과거 급제는 아버지의 영향이다. 아버지는 자식의 교육에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백곡이 어린 나이에 심한 천연두를 치룬 까닭에 10세의 늦은 나이에 학습을 시작하였으나 능력이 몹시 노둔하였다고 전해진다.

겨우 象詩를 노래하며 춤출 나이가 되었을 때 심한 천연두를 앓아 성질이 상하여

6)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 「行狀草(金行中)」, “曾祖諱忠甲 文科持平 贈左贊成上洛君 祖諱時晦 文科富平都護府使 贈弘文館典翰 有弟諱時敏 武科策宣武勳 封上洛府院君 諡忠武公 贈領議政 於王考爲養祖也 考諱緻 號南峯. 文科慶尙道觀察使 贈吏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 封安興君 以王考承襲封君推恩故也<중략> 壬寅登文科 以年老拜國子學諭 陞拜典籍 肅謝...”

노둔하게 되었다. 10세 때 비로소 증조부에게 증사를 전수받았으나 천황1장을 삼일동안 배우고도 구독하지 못했다. 외삼촌 매계공 참판 목서흠이 와서 보고 일러 말하기를 ‘그만 두라.’고 하자 증조부께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바탕이 노둔하기가 비록 이와 같지만 천성이 곧고 글이 빛나니 후일 글로써 세상을 탄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7)</sup>

백곡의 외삼촌 목서흠의 ‘학문을 그만두라’는 권고에 아버지 남봉 金緞은 받아들이지 않고 백곡에 대하여 노둔하지만 命直文曜라며 그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백곡은 아버지가 광해군의 학정 때문에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부터 동래부사로 떠나기 전까지 그의 밑에서 수학하였으며, 그 외 사승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아 그 이후 독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19세가 되던 해 부친이 임지인 동래로 떠나면서 ‘학문에 힘쓰라’는 훈계를 두문불출하고 실천한데서 짐작할 수 있다.

갑자년 봄에 동래부에 찾아뵈오니 증조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읽은 책이 얼마만큼 되느냐? 시 지은 것이 몇 수나 있느냐?’라고 하니 조부께서 과시를 지은 것 56수를 드리니 보기를 마치고 곧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선비가 되었구나. 이후는 네가 힘써 행하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하다.<sup>8)</sup>

여기에서 鉛槧에 몰두하여 그 재주가 刮目相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경상관찰사로 공무하던 중 福州<sup>9)</sup>에서 卒하자 三年服을 입으면서 더욱 切磋琢磨하였다. 그 결과 시묘를 마치면서 文思가 눈에 띄게 신장되었는데, 다음

7) 위의 책, “年纔舞象 重經痘疾性傷質魯. 十歲 始受曾史於曾王父 而天皇一章學三日 不成口讀 三考之外舅梅溪公 睦參判敍欽 來見謂曰 已之 曾王父曰 是兒質魯雖如此 然命直文曜 他日可以文鳴於世.”

8) 위의 책, “癸亥春 甲子春 來觀于東萊府 曾王父曰 汝所讀幾何 所作有幾首 王考獻以曾所製科詩五六首 覽畢乃曰 汝今則成儒 此後在汝力行之如何耳.”

9) 福州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고려시대 이름이다.

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정묘년(24세)에 외삼촌 목서흠을 찾아뵙자 학문의 정도를 묻고는 그의 자제들과 백곡의 재주를 시험하였다.

‘너희들은 각각 단율로 시를 지어라.’하니 조부(김득산)께서 즉시 소리로 응하면서 대답하기를

북두성은 난간에 들고 달빛은 하늘에 가득한데 물확의 가을빛이 찬 안개에 잠겼어라/ 황곡이 오래된 술동이에 의지해 기대어 있는 것이/ 천 년 전 도연명의 정원 가 같구나.라고 하니 매계공이 극찬하며 말하기를 ‘이런 아버지가 있으니 이런 아들이 있고, 그 고을에 문인이 있으니 시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0)</sup>

그의 외삼촌 매계 목서흠<sup>11)</sup>은 백곡이 학문수행에 소질이 없을 지적하고 그만둘 것을 권한 사람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후 그의 詩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백곡이 이러한 詩才를 이루기까지 그의 가능성을 믿은 부친 김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말하고 있다. 백곡은 그 후에도 시품을 높이기 위해 학처를 찾아다니며 30여 년 동안 문장수업에 매진하였다.

경오년(인조8년) 책 보따리를 지고 절에 들어가 책을 읽은 것이 10여년에 이르고, 이와 같은 세월을 취식하면서 이바지하니 그 功勞가 많았다. 그 후 호서로 가서 10년을 閱讀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4년을 보냈는데, 전번에 먹을 마시며 곤궁할 때 뜻을 얻지 못하여 또 이곳에 이르러 밥을 지어 먹으며 이 절에서 거주할 때처럼 하였는데, 오늘 손가락을 꼽아보니 이미 30여년의 세월이로다.<sup>12)</sup>

그 후에도 얼마나 문학에 대한 공력을 들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

- 
- 10) 위의 책, “汝曹各賦短律 王考卽應聲而對曰 星斗闌干月滿天 石池秋光鎖寒煙 黃花依舊樽仍在 千載陶君若箇邊 梅溪公大加稱贊曰 有是父有是子 其郡有文人知詩者.”
- 11) 陸敍欽(1571~1652) :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이다. 자는 舜卿이요, 호는 梅溪이며 시호는 忠貞이다.
- 12) 金得臣, 『柏谷集』 책5, 「贈惠正上人序」, “庚午歲 擔書笈往蘿刹 諷讀至十餘祀 而爾日月炊飯以供之 功勞爲多. 其後往湖西閱十稔 復歸落社已四載 乃者飲墨困不得志 又抵爾所 吃爾炊飯如住蘿刹時 而今屈指已三十餘年所.”

이다. ‘擔書笈往蘿刹’라는 말에서 그의 결심을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忍苦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劣才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대단한 독서광이었다. 그의 나이 31세 되던 해 책을 권당 1만 번 이상 읽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古文三十六首讀數記」<sup>13)</sup>에 따르면「伯夷傳」을 비롯한 고문 36편을 일만 번 이상 독파했는데, 특히「伯夷傳」은 1억1만3천 번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文思를 위해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즐겼다. 34세 되던 해 관동지방을 유람한 것을 시작으로 삼척, 청주, 영동, 여주, 단양 등을 旅遊하며 騷人들과 교류하였는데, 이때 旅遊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시로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백곡의 애환 등이 심경적 성정이 잘 드러나 있다.

出仕의지가 드러나는 시도 많은데, 이는 가문의 명예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39세에 사마시에 합격은 했지만 대과에서 낙방에 낙방을 거듭하다가 壬寅年(59세) 늦은 나이에 문과 증광시에 급제함으로써 ‘文科四代’를 이루었는데 급제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좌절을 맛보았는지 짐작되어진다.

대과 급제 후 성균관학유로 벼슬을 시작하여 예조좌랑, 승문원판교 등을 지내고 하향하였다. 이후 괴산으로 이주하여 醉墨堂을 짓고, 송도, 단양 등을 旅遊하면서 소객들과 교류하였으니 시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갑자년(81세)에 와병 중 明火賊에게 상해를 당하여 취묵당에서 졸했고 청안면 좌구산 선영에 묻혔다.<sup>14)</sup>

李玄錫이 撰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安豐君金公墓碣銘」에 백곡이 스스로 짓기를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자책하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힘쓰는데 달려 있을 뿐이다”<sup>15)</sup>라고 하였다.

13) 金得臣, 『柏谷集』 책5, 「古文三十六首讀數記」,

14) 金得臣,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安豐君金公墓碣銘(李玄錫撰)」

15) 위의 책, “無以才不猶人自畫也. 莫魯於我 終亦有成 在勉強而已.”

이러한 노력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澤堂 李植은 ‘今見詩與文, 可爲當今之第一.’<sup>16)</sup>이라고 했으며, 평생지우 久堂 朴長遠도 ‘詩伏一世’<sup>17)</sup>라고 하였다. 효종도 「龍湖」는 ‘唐音에 넣어도 부끄럽지 않다.’<sup>18)</sup>고 극찬했을 정도니 名振의 정도를 알만하다.

### Ⅲ. 누정으로의 旅遊

백곡은 부친이 永眠하면서 입었던 三年服을 벗으면서 山寺에서 翫詩하고 景勝地를 유람하며 시심을 녹였다. 34세 때 관동지방을 유람하고 이듬해 봄 삼척에 머물렀으며, 때에 따라 청주, 여주, 단양 등을 찾아서 지인, 소객들과 어울리며 시로 대화하고 시로써 삶을 즐겼다. 특히 가는 곳마다 그곳의 누정에 들러 자신의 性情을 시로 남겨놓고 있는데, 그의 누정시를 살펴보면 누정을 찾는 이유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상을 발하기 위함이다. 「壽樂堂次韻」은 堂에 현액한 시의 운을 차 운하여 지은 것인데 이곳에서 자신의 부족한 詩才를 극복하기 위해 避世修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峽裏仙區別 골짜기 속 선경으로 떠나니  
君爲避世翁 세속 피한 늙은이가 되었네.  
燭搖風自北 촛불이 북풍에 흔들리고  
窓曙日生東 창문으로 해 뜨도록 날을 새네.  
野鶯依沙際 야목은 모래톱에 의지하고  
池荷偃雨中 못의 연잎 우중에 누워있네.

- 16)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 「行狀草(金行中)」, “贊見澤堂李尙書植 澤堂曰 聞名久矣. 今見詩與文 可爲當今之第一 由是文名大振. 梅溪公見澤堂曰 當今詩文 誰爲第一. 答曰 令公之甥侄金某之詩.”
- 17) 朴長遠, 『久堂集』 卷14, 「送金子公南歸序」.
- 18) 金得臣,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 「搜錄」, “雖入唐音無愧.”

我非陶謝手 내 도연명과 사영운의 솜씨는 아니니  
安得作詩工 어찌 공교로운 시를 지을 수 있으리.

백곡은 당시의 文士들로부터 시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 터이지만 늘 자신의 詩才에 만족하지 못하고 詩品을 올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가 壽樂堂<sup>19)</sup>을 찾은 것은 꼭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 詩慾이 대단했음을 느끼게 한다. 이 시의 수련에서처럼 세속과 단절하고 있는데, 그 단절의 이유를 함련에서 밤을 새며 詩思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苦悶의 이유가 미련에 나타나 있다. 즉 試才를 ‘陶謝手’에 미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8구의 반어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詩才부족을 극복하는데 불가능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백곡이 시품을 높여보려는 노력과 의지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 자신의 겸손함에 대한 속내를 은근히 드러내고 것이다.

『醉默堂偶吟』에서는 정자 주변의 풍광에 도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도 정자 앞에 펼쳐진 풍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무척 고심하는 모습이다.

水光晴后艷 물빛은 비 개인 뒤에 곱고  
山色雨中奇 산 경치 빗속에 산뜻하네.  
驚核誠非易 진경을 그리기 참으로 쉽지 않지만  
吾寧廢賦詩 내 어찌 시 짓는 것을 그만두랴.

정자 주변의 풍광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를 묘사하는데 표현해내기 어려워<sup>20)</sup>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아마도 날이 갠 뒤 정자 아래 흐르는 강물 빛과

19) 현 청주시 가덕면 병암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屏巖 申永植(자 伯久, 1625~1694)의 先考가 세웠다고 宋尤庵의 『宋子大全』권143, 『壽樂堂記』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검암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20) 신범식, 『백곡 김득신 시의 미적 특질』, 『한국어문학』26집, 한성대학교한성어문학회, p.225.

비오는 가운데 앞산의 경치를 對句로 놓고서 승구와 결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리라. 여기에서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寧廢賦詩에서 알 수 있듯이 백곡은 표현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고 집요한 詩慾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千慮一得과 一字千鍊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결국 이 시에서도 결구를 방어적으로 처리하여 그의 의도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萬感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함으로써 그의 표현적 한계를 기발하게 극복하고 있다.

앞의 두 시에서처럼 백곡이 누정을 찾아 그곳을 노래함에 있어 詩才가 부족함을 고민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몹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곳에 펼쳐져 있는 정경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 놓고 있으며 자신의 성정을 은근히 발현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방어적 표현이 시의 묘미를 더해 주고 있다.

둘째, 수심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백곡이 무인년(35세)에 삼척에 여러 날 머무르면서 竹西樓를 자주 찾았다. 이 누각은 이곳의 오십천 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찔할 만큼의 낭떠러지에 접해 있다. 그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詩情을 나누어 이 누정에서 지은 시 3제 4수가 전해진다. 이들 시에서는 누각의 환경을 자신의 수심에 이입하여 노래하고 있다.

「次竹西樓板上韻」은 죽서루에서 술을 마시며 향수를 달래고 있다.

|         |                          |
|---------|--------------------------|
| 縹緲飛欄城上樓 | 성 위 누각, 가물가물 날듯 한 난간에    |
| 登臨忽覺爽如秋 | 올라가니 싸늘하기가 가을 같구나.       |
| 千層列岳衝霄立 | 천 층이나 벌린 산이 하늘을 찌를 듯     |
| 一帶長河殷地流 | 한줄기 긴 내가 땅을 울리며 흐르노라.    |
| 舊國煙花供客夢 | 古都에서 맞는 춘경을 나그네의 꿈으로 받들고 |
| 異鄉杯酒緩春愁 | 타향에서 따른 술잔 봄의 수심을 누그리네.  |
| 世間名利都無意 | 세상의 명리에는 한갓 뜻이 없으니       |
| 端合吾生托白鷗 | 내 삶을 백구에 의탁함이 딱 맞네.      |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에 하나 일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목가적이거나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함련에서 누정의 경관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분위기가 싸늘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수련 ‘縹緲飛閣’과 ‘爽如秋’가 의미하는 것이 경련에서의 ‘春愁’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수는 곧 향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낭떠러지에 서있는 누각의 위태로움과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심정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杯酒’로써 초라한 나그네의 신세를 자위하는 모습이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유롭게 훨훨 나는 ‘白鷗’와 대비하고 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竹西樓」에서도 앞의 시와 같은 심정임을 노래하고 있다.

|         |                           |
|---------|---------------------------|
| 晚登飛閣倚危欄 | 저물녘 비각에 올라 아찔한 난간에 기대니    |
| 落日亭亭三兩竿 | 우뚝한 두서넛 장대에 석양이 비치네.      |
| 天勢遠包窮海關 | 하늘의 기운 멀리 감싸 먼 바다 광활하고    |
| 石根深入大江蟠 | 돌부리 깊이 박혀 큰 강에 서렸구나.      |
| 春來遊賞方吟病 | 봄에 와 완상함에 병으로 신음하나        |
| 老去文章勝達官 | 나이 들어 한 문장, 벼슬하는 것보다 낫구나. |
| 索酒樽前傾一盞 | 술을 찾아 술동이 앞에서 한 잔 기우리니    |
| 鬱陶愁抱醉中寬 | 울적하고 답답한 마음 취중에 너그러워지네.   |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걱정거리를 누그러 보고자 하는 심정에서 누정을 찾고 있음이 느껴진다. 수련에서 ‘晚登飛閣’, ‘危欄’, 그리고 ‘落日’, ‘竿’의 시어가 그렇고 함련 역시 싸늘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다만 앞 시의 경련을 미련으로 바꿔놓았을 뿐이다. 경련에서 벼슬보다 문장을 한 것이 다행임을 말하고 있으나 출사의 의지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자기 자신을 安慰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登竹西樓」其一에서 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향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迢迢湖路幾時尋    멀고 먼 호서의 길 어느 때 찾아가리오.  
 回首天邊萬疊岑    머리를 돌리니 하늘가에 첩첩이 산봉우리라.  
 老雁嘶和蠻店笛    늙은 기러기 울음소리 주막의 피리와 화음을 이루고  
 怪禽啼雜峽村砧    기이한 새 울음 산골마을 다듬이질 소리와 섞이네.  
 中原戰血流依舊    중원의 전혈은 여전히 흐르는데  
 西塞軍聲動至今    서쪽 변방의 군 함성 지금까지 들려오네.  
 獨上危樓憑曲檻    홀로 아찔한 누각 굽은 난간에 기대어 보니  
 海棠花雨暮江濤    해당화 저문 강 물가에서 비를 맞고 있구나.

이 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첩첩산중이라 가야할 길  
 이 아득하고 세상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中原戰血’이 ‘流依舊’하  
 다는 것으로 보아 병자호란이 끝나고 삼전도의 굴욕을 맞본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이라서 전흔이 남아 있고, 난을 겪을 당시 백곡 자신도 경상도 선주  
 로 피란을 하였던 터라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추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련 ‘中原戰血流依舊, 西塞軍聲動至今’를 두보의 절필시  
 『風疾舟中伏枕書懷(바람 빠른 배 안에서 엎드려 마음을 적다)』에서 용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혈은 여전히/ 군 함성소리 지금까지 들려오네’<sup>21)</sup>인데,  
 두보는 자신의 불운이 바로 전쟁이라고 여기고 있다. 天寶之亂<sup>22)</sup>으로부터 시  
 작되어 두보 말년까지 이어진 크고 작은 변란은 두보의 삶 전체를 요동치게  
 했고, 그래서 이 절필시의 마지막도 끊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염려로 채워진  
 것이다.<sup>23)</sup> 바로 백곡이 두보의 시구를 用事한 것도 전쟁에 대한 염려와 무관  
 치 않다고 여겨지고, 두보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수심을 떨치지 못했던  
 것처럼 백곡 자신도 그러한 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자신의 걱정거리를 누정으로 移入하여 이를 해결하

21) 杜甫, 『風疾舟中伏枕書懷』, “<전략> 戰血流依舊, 軍聲動至今. <후략>”

22) 안사의 난, 또는 안록산의 난. 중국 당나라의 절도사였던 安祿山과 그의 부하 史思明이 일으킨 대규모의 반란이다. 天寶 4년에 일어나 天寶之亂이라고도 한다.

23) 이영주의 4명, 『두보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155.

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죽서루의 위태로운 난간을 자신의 수심에 견주어 백곡이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자 주변의 풍광을 牧歌的으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백곡의 시에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감탄하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 하겠다. 그는 그야말로 ‘詩中有畫’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절구시에서 이러한 시풍이 많이 나타나는데, 「龜亭」도 이러한 시류에 하나이다.

龜亭은 伏龜亭<sup>24)</sup>을 이른다. 이 시는 「龜亭」의 其二와 其三으로 북구정의 저녁풍경과 아침모습으로 대조하여 읊고 있는데, 정자 주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목가풍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시를 읽는 순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시킨다.

夕照轉江沙 석양이 모래톱에 깔리고  
秋聲生野樹 들녘 나무 가을 소리를 내네.  
牧童叱犢歸 송아지 몰며 돌아가는 목동  
衣濕前山雨 앞산에 내린 비로 옷이 젖었구나.

이 시는 詩句를 近景과 遠景, 그리고 近景과 遠景의 모습으로 전개하였고

清鍾殷佛舍 맑은 종소리 은석사에서 들려오고  
綠霧沈江樹 강나무 푸른 안개에 잠겨 있네.  
漁客濕蓑衣 고기 잡는 이 도롱이가 젖었으니  
應知前夜雨 지난 밤 비 온 줄 알겠구나.

其三에서도 시구를 遠境에서 近景으로, 近景에서 遠景으로 배치하여 북구정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시의 구성을 대구로 전개하였다. 起句의 ‘夕照’와 ‘清鍾’, ‘江沙’와 ‘佛

24) 천안시 북면 연춘에 위치해 있다.

舍’, 承句의 ‘秋聲’과 ‘綠霧’, ‘野樹’와 ‘江樹’ 轉句의 ‘牧童’과 ‘漁客’, ‘叱犢歸’와 ‘濕蓑衣’, ‘衣濕前山雨’와 ‘應知前夜雨’로 대비함으로써 시간, 장소, 계절, 위치, 인물, 상태를 좀 더 산뜻하게 해준다. 또 其二의 承句 ‘秋聲生野樹’ 轉句 ‘牧童叱犢歸’를 동적으로, 其三의 承句 ‘綠霧沈江樹’ 轉句 ‘漁客濕蓑衣’를 靜的으로 배열함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사뭇 다르게 연출하고 있다.

백곡은 天機와 사실성을 통해 생명을 조화롭게 읊은 시가 으뜸<sup>25)</sup>이라는 시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천기론은 조선 후기 허균(156~1618)과 장유(1587~1638) 등이 송나라 엄우의 천기론을 받아들여 한 때 소객으로부터 유행했던 이론이다. 장유는 『石洲集序』에서 “시는 天機이다. 울림은 소리에서 나오고 화려함은 빛깔에서 나오며 淸濁과 雅俗은 自然에서 나온다. 소리와 빛깔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天機의 묘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sup>26)</sup>라고 하여 백곡의 천기론도 이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시는 연작시로 자신의 시론에 잘 부합하는 작품인데, 그야말로 詩中有畫, 畫中有詩란 말처럼 詩라기보다 오히려 그림이라고 느껴질 만큼 직관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두 시를 매우 절묘하게 대비하여 시의 정취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어 두 시의 結句에서 비온 뒤에 맑음을 가미함으로써 遠景이 클로즈업되는 느낌이어서 이 시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sup>27)</sup>

넷째, 이별과 만남의 공간이다. 조선시대의 樓亭은 儒家의 정신과 결합하여 풍류를 즐기면서 심신을 달래는 공간으로써, 학문적 이념을 토론하고 세상의 일상에 대하여 대화하는 곳이며 자연과 교감하면서 浩然之氣를 기르는 쉼터로써 활용되었다.<sup>28)</sup> 때문에 이곳은 만남과 이별을 하는 장소이기도하다.

25) 『終南叢志』에서 시의 본질을 “무릇 시는 天機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하여 스스로 조화의 공을 운용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시를 창작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 표현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아 ‘寫景逼真’의 시론을 펼치고 있다.

26) 張維, 『谿谷集』 권6, 『石洲集序』, “詩天機也. 鳴於聲, 華於色澤, 淸濁雅俗, 出乎自然. 聲與色, 可爲也. 天機之妙, 不可爲也.”

27) 송기섭, 「천안의 누정시 고찰」, 『한국고전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p64.

백곡의 누정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지어진 시가 여러 편이 보인다. 「寒碧樓別陸達夫」가 그 중 하나인데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江口賓鴻獨叫群 강어귀 객 기러기 홀로 무리 찾아 올어대니  
 數聲淒切不堪聞 치절한 그 소리 차마 듣기 어려워라.  
 秦京逢着何時定 서울에서 어느 때 다시 만날까.  
 最是離愁爲使君 무엇보다 이별이 서러운 건 원님 때문일세.

목달부는 백곡과는 외종지간이면서 또한 詩友이다. 그가 청풍부사로 있을 때 백곡이 찾아가 머물다가 그곳 한벽루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시로 읊고 있다. 만남과 이별은 곧 ‘離者定會, 會者定離’라고는 하나 만남은 반갑고 즐거운 것이며 이별은 情恨이 남는 법이다.

이 시에서 ‘賓鴻’과 자신을 등식화하고 있어 기러기의 처절한 울음처럼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외종형제로서가 아니라 문학으로 맺어진 傳心의 벗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결구에서 형, 또는 아우의 호칭이 아니라 ‘使君’으로 호칭함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백곡의 이별에 대한 슬픔은 ‘離者定會’라고는 하지만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별의 서러움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반면 「次寒碧樓洪子晦韻」에서는 이별함에 있어 위의 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激灑金杯竹葉春 황금 잔에 찰랑이는 죽엽춘주로  
 臨行欲滌別愁新 떠나기 전 이별 시름 씻고자하네.  
 休言兩處江山阻 두 곳이 강산으로 막혔다고 말하지 말게  
 夢裏相逢我二人 꿈속에서 우리 두 사람 만나면 되지.

이별이 매우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별에 대한 시름을 죽엽춘주로 술잔을

28) 송기섭, 「천안의 누정시 고찰」, 『한국고전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p64.

나누면서 풀고 있다. 언제든지 강산이 막혀 있다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런데 백곡이 홍자화<sup>29)</sup>와 이별함에 있어 이별의 감정을 진정시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元韻<sup>30)</sup>의 결구 ‘可奈明朝別故人’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이별을 마음 아파하는 벗에 대한 위로의 말이 ‘夢裏相逢我二人’인 것이다. 여기에서 백곡의 심정도 「寒碧樓別陸達夫’에 나타난 심정과 같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누정은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의 장소이다. 하지만 누정이라는 공간은 오히려 만남의 약속 장소이며 만나 인정을 나누는 자리이다. 「次李德培韻’의 其二에서는 앞의 두 수와는 달리 벗을 만나 시름을 달래고 회포를 푸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使君登眺處 원님과 정자에 오르니  
 亭近峽江寒 정자 근처 골짜기로 흐르는 강물이 차구나.  
 美酒鷓鴣杓 향기로운 술 노자표<sup>31)</sup>로 따르고  
 珍羞瑪瑙盤 기름진 안주 마유반<sup>32)</sup>에 차렸네.  
 光陰愁裏走 세월은 시름 속에 지나가고  
 天地醉中寬 세상은 취한 가운데 넓고 크구나.  
 此物如無死 이 물건(술)은 영원히 죽지 않을 터이니  
 相逢每盡歡 자주 서로 만나 즐거움을 다하세.

정자에서의 벗과 만남으로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 함련 ‘美酒鷓鴣杓’와 ‘珍羞瑪瑙盤’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만에 만나 질편하게 회포를 풀고 있다.

29) 洪處亮(1607~1683)의 자, 호는 北汀, 본관은 남양, 시호는 貞靖公, 『北汀集』이 있다.

30) 『柏谷集』 책2, 「附元韻(洪處亮)」, “病裏虛經爛熯春 庭花如夢綠陰新. 江頭酒盡青燈暗 可奈明朝別人.”

31) 가마우지 모양으로 만든 술구기로 金母(仙女인 西王母를 지칭함)가 여러 신선과 赤水에 모여 잔치를 할 때 벽금앵무배와 백옥노자표가 있었는데, 앵무배가 비면 노자표가 저절로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려 하면 앵무배가 저절로 들렀다는 전설이 있다.

32) 껌각과 유리로 장식한 화려한 소반을 말한다.

‘鷓鴣杓’는 李白(701-762)이 노래한 「襄陽歌」에 나온다.<sup>33)</sup>

백곡은 벗을 만나 鷓鴣杓에 瑪瑙盤의 기름진 안주로 대작하면서 이백을 떠올렸고, 鷓鴣杓에 鸚鵡杯로 향기로운 술을 마시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이백을 흠모하는 것이리라. 그런 그의 마음을 경련과 미련에서 느낄 수 있다. ‘光陰愁裏走’ 즉 시름은 지나가는 것, ‘시간이 약이다’임을, ‘此物如無死’는 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물건이므로 언제든 만나 교감할 수 있는 매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누정은 만남과 이별에 있어 회포를 풀고, 기약은 없지만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는 공간임을 이들 시를 통해 느끼게 한다.

#### IV. 樓亭詩에서 靜과 動의 조화

백곡의 누정시를 살펴보면 靜적인 시어, 시구와 動적인 시어, 시구를 이용하여 詩流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시 안의 함련과 경련을 靜動, 또는 動靜으로 배치하여 시의 시공간적 입체감을 주는 시가 보이고, 連詩에서는 動적인 시와 靜적인 시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시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백곡의 「登後雲亭」<sup>34)</sup> 6수 중 其二에서는 정자를 찾은 이유를 그곳의 경치를 완상하면서 시를 쓰고 싶은 욕망에서임을 알게 해준다.

33) 李白, 「襄陽歌」, “<전략> 옆 사람이 무슨 일로 웃는가? 라고 묻기에/ 산에 사는 노인 술에 곤죽으로 취하여 웃어 죽는다고 하네./ 노자표에/ 鸚鵡杯로/ 백 년 삼만 육천 일을/ 하루에 모름지기 삼백 잔씩은 기울여야지.(傍人借問笑何事, 笑殺山翁醉似泥. 鷓鴣杓, 鸚鵡杯. 百年三萬六千日, 一日須傾三百杯.) <후략>”

34) 後雲亭은 청주의 동쪽 김단산 아래에 있는 정자이다. 후운정은 옥화9곡에서 제2곡으로 명명하였는데, 옥화9곡은 조선 선조 때의 서계 李得胤(1553~1630)이 설정하였다고 전해진다.

層厓飛快閣 층층 언덕에 날렵한 정자를  
 今日始攀登 오늘에야 비로소 올랐구나.  
 水訝鯨龍鬪 물은 사나운 용 만나 다투고  
 山疑怒馬登 산은 성난 말처럼 뛰어올랐네.  
 霜凋楓似錦 서리에 물든 단풍 비단 같고  
 雲捲月如燈 구름을 걷은 달 등불과 같네.  
 我豈陶韋手 내 어찌 도연명과 위응물<sup>35)</sup>의 재주만 하겠냐만  
 題詩愧不能 시를 짓기 못할까 부끄러울 따름이라.

後雲亭의 자리는 淸州 檢丹山(현재 청주시 미원면 계원리) 서쪽 거북모양의 산록으로 최치원이 산천을 유람하다 머물렀던 곳이다. 晚洲 洪錫箕(1606-1680)가 말년에 이곳에 정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다. 그가 쓴 「後雲亭記」에 의하면 그곳에 은거할 정자를 엮고 ‘後雲’이라고 명했는데, 이는 孤雲 崔致遠의 뒤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sup>36)</sup> 또한 자신이 은거하는 山谷 간에 머무는 구름에 빗대어 後雲이라고 하였다<sup>37)</sup>는 내용이다.

백곡이 後雲亭을 찾은 것은 詩伴 晚洲를 만나 회포를 풀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정자의 아름다운 풍광이 자신의 시심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기 위함도 있었다. 이에 백곡이 정자에 올라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 앞에 펼쳐진 높고 완만한 산등성이, 아름답게 물든 단풍, 그리고 露月의 빛을 만끽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때 느낀 심상을 力動的으로 시작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늘 오고 싶었던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今日始攀登」에서 그런 욕망을 느끼게 한다. 함련은 近景과 遠景의 경치를 시각적으로 기술하여 수련에서의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그러나 경련에서는 天과 地, 그리고 낮과 밤의 경광을 그려놓고, 陶韋의 재주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이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면 시

35) 당나라 때 시인. 오언시에 능했다. 위응물(737~80)은 시풍이 왕유, 도연명과 비슷했다. 왕유, 맹호연, 유종원과 더불어 ‘王孟韋柳’라고 하며, 도연명과 함께 ‘陶韋’라고도 부른다. 『韋蘇州集』10권이 있다.

36) 洪錫箕, 『晚洲遺集』 권6, 「後雲亭記」, “噫余後於文昌 寓意於亭名曰後雲.”

37) 위의 책, 「歸守一壑」, “然則一壑之雲也 名斯亭曰後雲也者非耶”

한 수 정도는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음을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그야말로 자연과 동화되어 저절로 이루어진 작품임이 느껴진다.

이 시를 살펴보면 함련과 경련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動과 靜의 조화가 절묘하다. 水를 獐龍鬪로, 山을 怒馬登으로 기술하여 水와 山을 동물적으로 표현하고, 楓을 錦으로, 月을 燈으로 채색하고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視空의 입체감을 높임으로써 感覺的 효과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 이로써 시의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또한 정자의 공간 속으로 주변의 경관을 끌어들이어 향유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登後雲亭」과는 대조적으로 靜적인 詩句로 시작하고 動적인 흐름으로 전환시켜 시의 조화를 이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龜亭聞笛」이 그러하다. 靜에서 動으로 전환시켜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정자의 주변을 입체화하면서 생동감을 살림으로써 한 폭의 영상을 보고 있는 느낌을 준다.

斷橋平楚夕陽低 평숲의 끊어진 다리에 석양이 기울고  
政是前山宿鳥棲 바로 앞 산 새가 깃들 무렵  
隔水何人三弄笛 물 건너에 어떤 이의 피리소리인가.  
梅花落盡故城西 옛 성 서쪽의 매화 꽃 떨구는구나.

기구에서는 ‘斷橋’에서 알 수 있듯이 내를 기준으로 정자와 물 건너편이 단절되어 있다. 또 때는 석양의 새가 깃들일 무렵이다. 그래서 정자의 분위가 매우 조용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三弄笛’이 들려오고 있다. 三弄笛이란 桓伊가 왕회지를 위해 세 번 불었다는 피리를 말한다.

이 시에서의 피리소리는 단절된 안과 밖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피리소리가 북구정을 감싸 돌면서 정자 안의 사람과 물 건너 피리를 부는 이 사이를 무언의 끈으로 잇고 있다. 즉 ‘斷橋’와 ‘隔水’로 인하여 함께 할 수 없지만 三弄笛의 소리에 의해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아마도 물 건너 피리 부는 이를 桓伊로, 자신을 왕회지에 빚댄 것이리라. 또 결구의 ‘梅花落’은 ‘三弄笛’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桓伊가 왕회지에게 들려준 笛曲이

‘落梅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梅花三弄’ 또는 ‘桓伊三弄’이라고 하는데, ‘三弄’이란 세상의 세 가지를 조롱하는 한다는 의미로 왕희지가 중앙정치의 부패로 지방장관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桓伊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연주한 것이다. 백곡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도 부패와 당파로 인해 출사하지 못함을 말하고 싶음이 아니겠는가.

이 고사를 李白이 그의 시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에 용사하고 있다. ‘황학루에서 옥피리소리를 들으니/ 강성의 오월에 매화가 지네.’<sup>38)</sup> 라고 읊었는데, 이 시를 노래한 시기가 이백이 安祿山의 난이 평정된 후 반역으로 몰려 夜郎(지금의 귀주성)으로 귀양 갈 때이다. 이로 보아 ‘落梅花’의 곡조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쾌한 곡이 아님을 추측 수 있다. 따라서 백곡이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龜亭聞笛」의 시 흐름도 애상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시의 흐름을 애상한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는 詩句를 動的에서 靜的, 또는 시의 온 句를 靜的으로 배치함이 마땅하나 이 시에서는 기승구의 ‘斷橋’, ‘平楚’, ‘夕陽’, ‘宿鳥處’의 정적인 시어로 배치하고 전결구에서 ‘三弄笛’, ‘梅花落’의 동적인 시어로 놓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결구의 詩語가 가지고 있는 애상한 분위기의 故事的 의미 때문이다.

반면 「淸心樓」<sup>39)</sup>는 위의 시들과는 달리 靜的, 動的으로 詩句를 번갈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시의 분위기가 조용하기보다는 역동적이다.

|         |                        |
|---------|------------------------|
| 蒼山中坵大江開 | 울창한 산 탁 트인 데로 큰 강이 열렸고 |
| 北走波濤吼萬雷 | 파도가 우렛소리 내며 북으로 달린다.   |
| 月上青天如白晝 | 하늘에는 달이 떠올라 대낮처럼 밝은데   |
| 孤帆一片漢陽來 | 한 조각 외로운 돛배가 한양에서 떠온다. |

38) 李白,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 “黃鶴樓中吹玉笛, 江城五月落梅花.”

39) 경기도 여주시 창동 여주초등학교 뒤편 강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표석만 남아 있다.

淸心樓는 조망이 좋고 매우 아름다운 명승지로 남한강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려조의 李穀, 鄭夢周, 李崇仁, 李穡과 조선조의 徐居正, 申用漑, 宋時烈 등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시를 지어 현관을 걸어들 정도였다. 백곡도 이곳을 찾아 위의 시를 지었는데, 주변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시는 「龜亭聞笛」과 비교해 보면 힘이 느껴진다. 詩句를 살펴보면 기구에서 ‘蒼山’, ‘中坵’, ‘大江開’의 시어가 靜的이고, 승구에서 ‘走’, ‘波濤’, ‘吼萬雷’의 시어가 동적이다. 전구에서 ‘月上’, ‘青天’, ‘白晝’가 정적이고, 결구는 孤舟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음에 動的인 효과를 주고 있다. 그래서 기구와 전구의 정적 분위기를 승구와 결구가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해 주고 있다. 즉 파도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기구가 물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돛배가 물을 거스르며 올라올 수 있도록 전구에서 달이 대낮처럼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승구의 표현처럼 힘찬 물결은 결구의 물을 거슬러 오는 돛배는 힘겹게 하고 있다. 이처럼 詩句를 靜→動→靜→動으로 배열하여 사실적 현상을 묘사하면서 감정을 조절해 주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에 반해서 힘들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힘찬 물결로 인해 힘들게 거슬러 오는 돛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다음은 連詩의 경우를 보자. 「集虛堂六景」에서 其三 ‘前郊牧牛’와 其四 ‘後嶺尋花’를 비교해 보면 어느 곳을 提題로 하였느냐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먼저 「集虛堂六景」중 其三 ‘前郊牧牛’를 살펴보면 분위기가 動적임을 알 수 있다.

|       |                         |
|-------|-------------------------|
| 村童牧牛處 | 촌 아이 소치는 곳에             |
| 十里煙郊平 | 십리의 안개 들판에 드리웠구나.       |
| 披霧蓑衣濕 | 안개를 헤치니 도롱이가 젖고         |
| 臨風蘆管鳴 | 바람에 임하니 갈대가 소리 내어 우는구나. |
| 柳邊春水闊 | 버들 주변에 봄물이 광활하고         |

堤外夕陽明  독 밖 석양이 빛나는구나.  
 更渡東橋去  문득 동편의 다리를 건너가니  
 前山雨脚橫  앞산의 빗발 비끼어 내린다.

집허당은 ‘柏谷暮雪’, ‘銀石曉鍾’이라고 題하고 있는 데에서 자신의 고향인 잣밭마을(현 병천면 가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누정 내지는 집안의 사랑채로 추정된다. ‘前郊牧牛’은 集虛堂 앞의 전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목가풍의 노래이다. 현재 가정리에서 「集虛堂六景」의 표현을 바탕으로 바라보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前郊의 갈대밭이 그렇고, 은석사로 통하는 後嶺이 그렇다. 그리고 내 건너 앞산이 그러하다.

‘前郊牧牛’는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 이유는 작자의 視線이 여러 군데로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생동적이다. 또한 이 시에 쓰인 용언들도 모두 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에 쓰인 용언을 적어보면 ‘牧(소치다)’, ‘披(헤치다)’, ‘臨(이르다)’, ‘鳴(부딪혀 소리 내다)’, ‘渡(건너다)’, ‘去(가다)’, ‘橫(빗기어 내리다)이다. 모두 동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其四 ‘後嶺尋花’를 살펴보면 위의 시와는 사뭇 다르다. 차분하게 느껴진다. 이는 ‘層巖’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놓고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는 앞 시와는 달리 목가풍의 시가 아니라 정물을 묘사한 시이다.

層巖瓊萼綻  층층바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니  
 乘輿賞芳華  홍취를 타고 예쁜 꽃을 완상하도다.  
 悅似鋪紅錦  붉은 비단을 파는 가게처럼 황홀하고  
 眞如散彩霞  빛 흩어지지는 저녁놀이처럼 순수하구나.  
 清香知郁郁  맑은 향기는 멀리 퍼지고  
 亂影看斜斜  어른대는 그림자도 빗기어 있다.  
 却怕狂風起  도리어 두려운 것은 광풍이 불어  
 溪流泛落花   시내에 꽃잎이 떠내려가는 것이라.

한 눈에 보이는 정물을 묘사하고 있다. 층암에 핀 여러 꽃들을 황홀한 비단으로, 하늘가에 붉게 물든 아름다운 저녁놀이 빛내고 있다. 향기마저도 보이는 듯하다. 여기에 꽃 그림자도 놓치지 않고 있다. 또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는 자신이 절조를 지키며 묵묵히 현실을 버텨 보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그래서 혹시 광풍으로 인하여 낙화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는 느낌이다.

이 시의 시어들을 나열해 보면 층암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을 함련에서 ‘鏤紅錦’, ‘散彩霞’라 하여 시각적, 심미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清香’, ‘亂影’ 등을 통해서 후각적,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이 시에 쓰인 용언을 나타내는 한자에 있어서도 ‘綻(꽃피다)’, ‘賞(완상하다)’, ‘愜(황홀하다)’, ‘眞(진실하다)’, ‘知(안다)’, ‘看(대하다)’의 모두가 靜적인 글자들이다. 따라서 시의 분위기가 지극히 조용하다. 그러나 미련에서 ‘狂風’, ‘落花’ 등 動적인 말과 용언 ‘起(불어 닥치다)’, ‘流(떠내려가다)’를 배치하여 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미련이 동적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내용상의 의미가 전환되지 않는 것은 현상이 아닌 작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백곡은 詩字, 詩語를 동적, 또는 정적으로 배열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시의 내용으로 조절하여 감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부합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하겠다.

## V. 결론

앞에서 백곡의 누정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누정이라는 공간은 당시 자신의 성정을 발현하여 시상을 떠올리고 또한 인간사의 시름을 달래는 곳이다. 그리고 벗들과 함께 선비문화를 향유하며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다. 백곡이 곳곳을 旅遊하면서 반드시 그곳의 名亭을 찾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 그가 누정을 찾아 남긴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잘 투영되어 있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상을 발하기 위함이었다. 「壽樂堂次韻」에서는 避世修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날밤을 새워가며 詩品을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또한 「醉默堂偶吟」에서는 정자 주변의 풍광에 도취되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구를 찾지 못해 고뇌하는 모습과 반어적 표현으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萬感을 느끼게 한다.

둘째, 인간사에서 오는 愁心을 달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次竹西樓板上韻」과 「登竹西樓」에서는 누각의 위태로움과 백곡 자신의 愁心을 동일시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한 잔의 술로 녹이고 있다.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셋째, 정자 주변의 풍광을 즐기기 위함이다. 그의 시 「龜亭」의 其二, 其三에서 복구정의 저녁풍경과 아침모습으로 대조하여 읊고 있는데 이곳의 풍광을 牧歌的으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야말로 ‘詩中有畫’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넷째, 이별과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寒碧樓別睦達夫」에서는 이별에 대한 한없는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次寒碧樓洪子晦韻」에서는 슬퍼하는 벗을 위로하고 있다. 이는 「元韻」의 절구 ‘可奈明朝別故人’에 대하여 ‘夢裏相逢我二人’라고 답한 것으로 참으로 절묘하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次李德培韻」의 其二에서는 벗을 만나 시름을 달래고 회포를 푸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벗과 누각에서 鷓鴣杓로 술을 따르면서 이백의 삶을 함모함에 그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점칠 수 있게 한다.

또한 누정시에서 句나 聯 내에 靜과 動의 시어나 시어를 배열하여 句나 聯 단위로 배치하여 시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첫째, 「登後雲亭」은 動에서 靜으로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정자의 공간 속으로 주변의 경관을 끌어들이어 향유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龜亭聞笛」은 「登後雲亭」과 달리 靜에서 動으로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시 분위기가 조용하고 평온하게 시작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三弄笛’, ‘梅花落’의 動的인 시어가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시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은 이 시어에서 고사의 의미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清心樓」에서는 起句와 轉句에 靜的인 詩句를 배열하여 시의 분위기를 살려 주는 역할을 하고 承句와 結句에는 動的인 시구를 배열하여 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承句의 거친 물살을 結句의 힘겹게 거슬러 올라오는 듯배를 그림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셋째, 連詩에 있어 한 수는 動的으로, 다른 한 수는 靜的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이는 動靜의 묘미를 맛보게 하고 두 수를 비교함으로써 시의 색채를 산뜻하게 해주고 느낌을 준다. 「集虛堂六景」중에서 其三 ‘前穴攸牛’와 其四 ‘後嶺尋花’가 그러하다. 其三은 시어를 動的으로 배치함으로써 생동감이 있고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 시선을 다양하게 잡고 있다. 그러나 其四는 시어를 한정된 곳에만 뭉으로써 정물묘사가 세밀하고 뚜렷하다.

백곡은 작시할 때 시어, 시구를 배열, 배치함에 정적 시어, 시구와 동적 시어, 시구를 조화롭게 배열, 배치하여 시의 묘미를 피하고 있다. 즉 詩字, 詩語를 推敲하고 彫琢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詩語, 詩句를 靜的으로 또는 動的으로 표현할 것인가. 또 어디에 배열하고 배치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백곡의 시는 자연스러우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경치를 묘사함에 있어 현장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회화성 있게 그리고, 정물을 묘사함에 있어 핵심을 끄집어 특징을 살려내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性情을 녹여 넣고 一字千鍊하는 자세로 詩作에 임하기 때문에 한 자의 글자 버릴 수 없는 훌륭한 작품들이 대단히 많다. 이런 까닭으로 그를 ‘당금제일’의 시인으로 名振할 수 있었던 것이다.

<參考 文獻>

- 金得臣, 『柏谷集』(한국문집총간 104집)  
朴長遠, 『久堂集』(한국문집총간 121집)  
宋時烈, 『宋子大全』(한국문집총간 108~116집)  
張 維, 『谿谷集』(한국문집총간 92집)  
洪錫箕, 『晚洲遺集』(한국문집총간 속 31집)

- 김광수,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송기섭, 「천안의 누정시 고찰」, 『한국고전연구』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신범식, 「백곡 김득신 시의 미적 특질」, 『한국어문학』26집, 한성대학교한성어문학회, 2007.  
이재복,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영주외 4명, 『두보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정무룡, 「송순 누정시 연구」, 『인문학논총』제14권2호, 경성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9.

Abstract

*A Study of Poem on Nujeong in Baekgok Deukshin Kim*  
*/ Song Gi-seop\**

Baekgok is a person who has left an indelible mark on the literature history of late Joseon dynasty. Although he was born rich as a member of eminent family, he was the slower intellects because of smallpox aftereffect that he has suffered from when young. However, inspite of dissuasion, he has tried to be known for his poems and he has left approximately 1500 poems with endless effort.

This writing has its aim to study poems and life of Baekgok Deukshin Kim, space application type appeared at a Nujeong poem, and harmony between movement and tranquility. He has utilized space of Nujeong at Nujeong poem through nature and image that Baekgok has felt at Nujeong, and harmony between movement and tranquility contained in the poem. An utilization is displayed with four types.

First, it is to display poetic concept. The appearance to put endless effort to compose poems, and to deliberate because he could not find line.

Second, he has used space as a tool to relieve anxiety coming from affairs of men. He has relieved anxiety and nostalgia with a drink by identifying his anxiety with the risk of castle.

Third, it is to enjoy scenery of pavilion. He has described the scenery pastorally and realistically, and it has allowed to realize 'poem describing scenery realistically'.

Forth, it is used as a space for farewell and meeting. The appearance to unburden oneself on emotion and pity from farewell with companions.

When Baekgok composing a poem, he has attempted to display subtlety of

---

\* Lecturer of Sunmoon Univ, Mamseoul Univ. / sks4423@naver.com

poem by harmonizing tranquil poetic diction and dynamic poetic diction when it comes to an arrangement of poetic diction. Thus, he has place a premium on arrangement of dynamic and tranquil poetic diction over the decision to use dynamic and tranquil expression. Because of that, an arrangement of movement and tranquility appeared in his poem is harmonious and fantastic.

Therefore, the genuine and pure nature, aesthetic image and superb harmony between movement and tranquility contained in his poem are results of consideration.

**【Key words】** Baekgok, Deukshin Kim, castle, Nujeong poem, bookworm

투고일 : 5월 18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